

# 나눔교육 반디 파트너 2017





## CONTENTS

<p>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래미학교) 7</p>	<p>부산녹색연합 (클린오션) 9</p>	<p>어린이리더십 강사협회 (모두다우릴봐조) 12</p>
<p>익산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2020) 14</p>	<p>제주동부 종합사회복지관 (성산중 나눔기자단 또똥) 16</p>	<p>풀뿌리희망재단 (SHINE) 18</p>
	<p>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 연대 (인천반디) 20</p>	



---

## 나눔교육 반디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는 청소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캠페인을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모금활동을 하는 청소년 시민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하고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와 연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나눔교육 비전



### 핵심가치



### 교육과정

- 1단계 나눔에 대한 이해
- 2단계 문제인식 및 활동주제선택
- 3단계 관련비영리단체 조사&연계
- 4단계 활동계획수립 실천
- 5단계 활동경험나누기

# 나눔교육 반디파트너 나눔응원전

## 진행안내

- 일시 : 2018년 1월 20일(토) 13시 - 17시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희
- 진행일정

시간	내용
12:00-13:00	전시
13:00-13:10	환영인사
13:10-13:25	반디파트너 소개 및 활동영상
13:25-13:50	함께 하는 프로그램
13:50-14:40	활동발표 1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익산희망연대 부산녹색연합,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 *발표순서 추첨
14:40-15:00	휴식 & 인상 깊었던 팀 투표
15:00-15:40	활동발표 2부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풀뿌리희망재단, 인권을생각하는복지활동가연대
15:40-16:00	휴식 & 인상 깊었던 팀 투표
16:00-16:20	인사말 및 시상식
16:20-16:50	수료증 전달
16:50-17:00	단체사진 및 마무리

## 함께해 반디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소아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한상용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김지용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경남중)	서보균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박혜정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머리술)	김민규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심재훈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머리술)	김민성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조성우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머리술)	신화익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김예은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머리술)	안규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서어진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머리술)	원정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김다빈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취향저격)	정서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래미학교)	박상윤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취향저격)	정진혁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	김민석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취향저격)	문예빈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또똥)	이하늘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반디'S)	윤영남
풀뿌리희망연대	송다정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반디'S)	곽민서
풀뿌리희망연대(SHINE)	윤단영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반디'S)	이현택
풀뿌리희망연대SHINE)	이유나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반디'S)	신금환
부산녹색연합	김수정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반디'S)	주민규
부산녹색연합(클린오션)	손규민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반디'S)	고건명
부산녹색연합(클린오션)	윤세웅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맘모스)	노훈
부산녹색연합(클린오션)	허정현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맘모스)	조영준
부산녹색연합(클린오션)	박상현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맘모스)	강순재
부산녹색연합(클린오션)	이영빈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맘모스)	곽민규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맘모스)	이성재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	채상아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반진호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	최흥숙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	홍유진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김재용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모두다우릴봐조)	김채림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김동현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모두다우릴봐조)	김채영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유학승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모두다우릴봐조)	박서우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이승혁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모두다우릴봐조)	이서우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양희수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모두다우릴봐조)	정다원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김재남	익산희망연대	원 경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이후찬	익산희망연대	서소영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최지현	익산희망연대	김은희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손유진	익산희망연대(2020)	이대현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송나라	익산희망연대(2020)	손민우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구희원	익산희망연대(2020)	원성범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구새봄	익산희망연대(2020)	최재민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송승준	익산희망연대(2020)	박현준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정기찬	익산희망연대(2020)	조성연
인권을 생각하는 복지활동가연대(인천반디)	조성현		





#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 래미학교

모듬명 래미학교

모듬원 박혜정, 심재훈, 김예은, 조성우, 서어진, 김다빈,  
박상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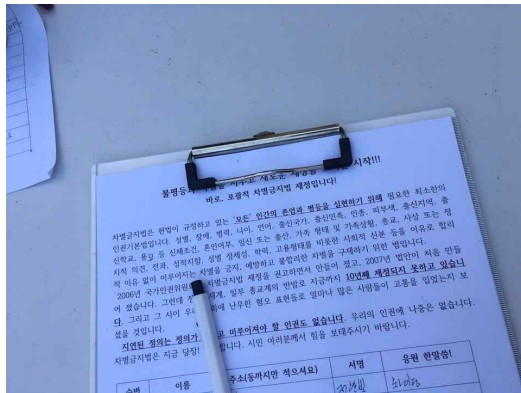
활동주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 주제선정이유

시민단체 및 기관을 돌아보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 중에서 식량문제와 인권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특히 인권에 대한 문제를 대다수의 모듬원들이 희망하여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차별과 관련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활동과정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 마련된 인권교육현장을 찾아가 인권의 의미와 문제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었다. 동행의 공익변호사님과 함께 광주민우회와 민중의 집을 찾아가 구체적인 인권피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반기로 하였다.



### 활동을 통한 변화(나, 지역사회)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만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다. 특히 평소에는 차별이라고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활동을 처음 해보았는데 서명을 해주신 고마운 시민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활동평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공부나 이야기 정도만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이어지다 보니 뭔가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짜증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어서 뿌듯하였다. 우리가 함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받은 활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

## 부산녹색연합

+

## 클린오션

모듬명 클린오션

모듬원 손규민, 윤세웅, 허정현, 박상현, 임도균

활동주제 해양 쓰레기를 줄이자

### 주제선정이유

· 부산이라는 해양 도시에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산업 등 많은 산업들이 발달해 있기도 하지만, 해양쓰레기 및 해양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양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야기 하다 보니, 사람들이 길거리 쓰레기는 항상 걸어 다니면서 봐서 심각한 정도를 알 것 같지만 해양 쓰레기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 활동과정 및 내용

우리 모듬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시간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처음 부산녹색연합 사무국에 모여서 주제를 정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해양쓰레기라는 주제를 선택했고, 어떻게 하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먼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선 인식개선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캠페인에 사용될 피켓 제작과 사람들에게 나눠줄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담은 용지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까지 우리 스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캠페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야외 캠페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지하철 환승하는 곳 앞에서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다.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캠페인을 끝으로 우리 반디 활동을 끝나게 되었다.

### **활동을 통한 변화(나,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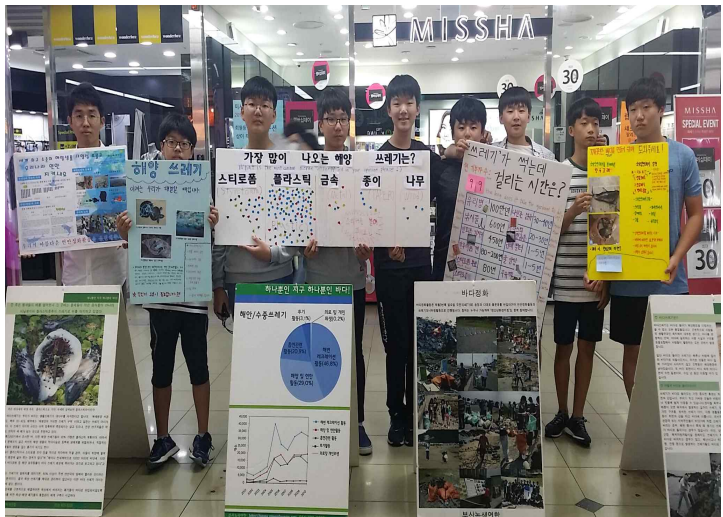
- 이번 반디활동을 통해 우리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해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놀랐다. 이번 캠페인으로 부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해양 쓰레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 부산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서면에서 그리고 평일 퇴근시간에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셨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명운동 및 홍보 자료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산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알리게 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 팀원들도 해양환경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값진 경험이었다.

- 해양 쓰레기라 해서 정말 해양 관련 쓰레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양쓰레기에도 육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리고 쓰레기들이 모여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고 그 쓰레기 섬에는 냉장고, 텔레비전 등으로 해양 쓰레기라고 볼 수 없는 쓰레기들도 많았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나라도 쓰레기를 길거리나 바닷가에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 활동평가

관심이 없던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갔던 모습을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무언가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좋은 것 같다.



---

## 어린이리더십 강사협회

+

## 모두다우릴봐조

**모듬명** 모두다우릴봐조

**모듬원** 김채림, 김채영, 박재아, 이서우, 정다원, 지승효

**활동주제** 조손가정 청소년 생활비 지원 모금캠페인

### 주제선정이유

비영리단체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다녀온 후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교복 마련할 돈이 없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같은 또래인 청소년 생활비 지원 하자고 뜻을 모았다.

### 활동과정 및 내용

1회차: 뚝섬유원지 안에 있는 강의실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을 겸한 반디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2회차: 모듬 이름을 짓고 나눔교육을 받았다.

3회차: 지역사회문제점을 조사하고 나눔 주제를 정했다.

4회, 5회차: 기부단체를 정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지원>을 주제로 삼았다.

6회차: 모임장소를 정하고 모금운동에 할 계획서를 작성했다.

7회차: 비영리단체인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를 방문했다.

8회, 9회차: 모임에 필요한 포스터를 만들고 모금캠페인에서 할 오케스트라 연습을 했다.

10회차: 정릉개울장에서 모금활동을 했다. 각자 재능에 맞게 악기 연주, 수제쿠키팔기, 페이스페인팅해주기, 머리해주기 등으로 모금활동을 했다.

11회차: 총 모금액 220,820원을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 활동을 통한 변화(나, 지역사회)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모금활동을 하게 되어 좋았다. 이번 모금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 활동평가

김채림 : 이번에 반디활동을 하면서 나눔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채영 : 나눔이라는 것은 매순간 조금만 배려한다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재아 : 이번 활동을 통해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마음도 나누니 행복을 느꼈다.

이서우 :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정다원 : 나눔이 단순히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승효: 자발적으로 시작한 나눔이라 그런지 느낌도 색다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



# 익산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시민학교희망)

+

## 2020

모듬명 2020

모듬원 조성연, 이대현, 원성범, 박현준, 변민중,  
손민우, 최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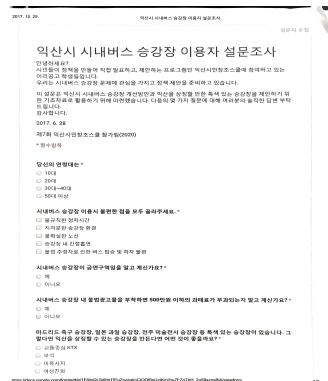
활동주제 편리하고 깨끗한 예술 공간으로 승강장을 바꾸자

### 주제선정이유

학교등교 및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를 타기위한 버스 승강장을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로 변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다.

### 활동과정 및 내용

1. 우리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로 버스 승강장을 바꾸는 곳으로 결정함
2. 선진지 견학을 하여 다른 도시를 보며 익산에 필요한 변화를 찾고 토론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보충함
3. 일반시민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내용 보충함.
4. 익산 창조스쿨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낌.
5. 캠페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래 공연 및 내레이션 형식의 공연을 해서 뿌듯함을 느꼈지만 준비한 내용이 많이 적어서 아쉬움.





### 활동을 통한 변화(나, 지역사회 등)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이 2018년 1월부터 익산시내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 중이나 아직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리들 스스로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른들이 많아졌다.

정류장 근처 불법주정차는 아직 많이 안 줄었지만 담배를 정류장에서 피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캠페인을 통해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과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 활동평가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인지 모르는 어른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나, 지속적인 홍보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봉사활동의 의미를 알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참뜻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주동부  
종합사회복지관**  
+  
**성산중학교  
나눔기자단  
또똥**

**모듬명** 성산중학교 나눔기자단 '또똥'

**모듬원** 이하늘, 김세현, 현은재, 현희아, 김보현, 홍위린,  
문재권, 강은녕, 오은혜, 고가은

**활동주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옐로카드 달아주세요!'

**주제선정이유**

저희 나눔기자단 '또똥'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읍지역의 특성 상 가로등이 적고 골목길이 좁아 차량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안전 용품인 옐로카드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보급 하자는 의견이 나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활동과정 및 내용**

- 03.10~08.09 : 나눔 및 인터뷰 방법 교육
- 09.08~09.14 : 지역사회문제찾기 및 지역사회문제해결 기획
- 10.13~10.27 : 온평리 마을 탐방 및 2차 기획회의
- 11.10~11.11 : 옐로카드 캠페인 준비 및 캠페인 실시
- 12.28 : 나눔응원전 및 나눔신문 제작



### 활동을 통한 변화

반디활동을 통해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초등학생들의 가방에는 옐로카드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옐로카드를 보며 지나다니는 차들도 아이들을 신경 쓰는 것 같다. 특히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우면 더욱 빛을 반사해서 반짝 거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아직 확연히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어린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활동평가

1년 동안 길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지만 모두 열심히 참여했다. 지역사회문제찾기를 하며 온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캠페인을 준비하느라 피켓 만들기, 옐로카드 포장하기 등 각자 맡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특히 3학년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훌륭하게 이끌어 주어서 좋았다.



---

## 풀뿌리희망재단

+

## SHINE

모듬명 SHINE

모듬원 김상연, 윤단영, 이유나, 주혜림

**활동주제** 동물에 대한 편견 바꿔주기 캠페인

### 주제선정이유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많이 키우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고 주변에서 빈번하게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 활동과정 및 내용

처음엔 나눔이 어렵지 않다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누었고 공감이 되는 문제를 정해 해결방법을 찾았다.

모듬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주변의 단체를 방문하여 비영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주제에 대해 캠페인실천 계획을 세워 3회차에 걸쳐 캠페인활동을 준비하였고, 2시간에 걸쳐 캠페인을 직접 실천하였다.



### 활동을 통한 변화(나, 지역사회 등)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뿌듯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눔이라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조금 더 천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어른들이 지지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활동평가

또래의 친구들과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다른 생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캠페인을 진행할 때 비가 오기도 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 인권을 실천하는 복지활동가 연대 + 인천반디

**모듬명** 인천반디

**모듬원**

김재용, 김동현, 유학승, 이승혁, 최민서, 양희수, 홍승균,  
이동욱, 김재남, 이후찬, 이곤택, 박승희, 이아형, 지재은,  
최지현, 손유진, 이지혜, 송나라, 한예진, 고규리, 구희원,  
이시연, 구새봄, 송승준, 정기찬, 백종민, 박진호, 김민기,  
조성현

**활동주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모금과 캠페인

## 주제선정이유

사람들이 바다에 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는 문제를 발견하여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다

## 활동과정

- \*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찾기
- \* 해양 쓰레기 관련 단체 찾기
- \* 단체 견학하고 인터뷰하기
- \* 모금캠페인 준비하기
- \* 모금하기
- \* 인천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기
- \* 섬쓰레기 줍는 여행을 가서 쓰레기 직접 줍기



### 활동을 통한 변화(나, 지역사회)

바다나 섬에 놀러가서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고 많이 버리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캠페인 통해 사람들도 해양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이번 반디 활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였다 앞으로 해양 쓰레기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배를 타고 인천에 있는 섬에 들어가 어르신들이 많아 쓰레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다

### 활동평가

캠페인 동안 사람들도 직접 쓰레기통을 찾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추운 날 우리들이 캠페인을 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 인천남중학교 친구들과 인주중학교 친구들이 서로 잘 몰랐는데 반디 활동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 되어 매우 좋았다.

다 같이 다음 활동을 약속하게 되어 한번 뿐 인 게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도 계속 하게 되길 기대한다.



